

# “온세상이 잠깁때 먹거리 좌판을 편다”

## 죽도시장 등 할머니·아주머니 IMF한파 극복 원동력

새벽시장의 분위기는 낮과는 사뭇 다르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무렵이 되면 죽도시장, 역전시장 등은 시골에서 올라 온 아주머니 할머니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개항 약국 앞에서부터 오거리까지의 사잇길과 인도, 새벽 6시가 지나기 시작하면 활기찬 삶의 소리가 들린다.

도시민의 식탁에 늘 오르며 먹거리의 공급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들은 포항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며 아침을 열어가는데 일부 공헌한 자들인지도 모른다.

포항 최대의 재래시장이라 할 수 있는 죽도시장.

죽도시장의 명성, 그 이전에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래된다는 다양성과 싸우는 장점이 뒷받침된다. 또 상업 용지와 주거지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할뿐더러 싱싱한 채소나 물건을 사려는 인근 수요자가 많다는 점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용천에서 왔으며 무, 시래기 삶은 것, 호박 말린, 찹쌀, 수수, 콩 등 된말한 것이든 무엇이든 머리에 이

고 와서 펴놓은 아주머니, 팔러 나온 5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웅크리고 있는 청진 할머니.

두터운 점퍼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얼굴만 간신히 내놓은 그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겨울을 녹일 요량으로 삶의 열정을 과시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는 새벽시장은 지금까지 추운 겨울에는 7시면 물건을 마음대로 골라 살 수 있다.

죽도시장 사잇길은 기존 상인들이 많은 반면 도로를 접한 인도에는 시골 사람이 많다.

죽도시장이 계층을 가리지 않고 폭리는 곳이라면 역전 시장은 인근 아파트 주민이 많이 찾는다. 따라서 역전 시장은 물건이 믿을 만 하다고 상인들은 나름대로 말한다.

IMF로 장바구니에 실린 서민들의 무거운 한숨만큼이나 뼈저리게 다가오는 현실은 아픔이다.

그러나 헤쳐 나가려는 그들의 힘찬 모습은 여명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배추 값을 비롯, 모든 물건값이 일반 시장보다 싸다.

시골에서 올라와 보자기째 펴놓은 콩이나 팥, 무 오소리, 가지, 미끼, 말린 것 등 웬만큼만 사두면 겨울 먹을 밑반찬은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속칭 1되에 1만원, 시래기 삶은 것 1천원 어치가 낮 시장의 두 배는 되는 것 같다.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 장바구니 들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아주머니.

이렇게 한바탕 새벽시장이 치열함을 치르고 나면 먹자골목에서 밝혀진 불빛을 따라 간이 좌판에서 파는 순대 국 등으로 빈속을 채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족의 아침 준비로 바쁜 7시 30분~8시경이 되면 시장은 손님이 뜰 때까지 시작하고 경찰의 단속 싸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또 다른 하루를 열어가려는 직장인들을 위해 좌판을 벌였던 인도를 돌려주어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전 시장은 오전 7시 49분에 도착한 열차를 타고 온 상인들이 돌아오고 나면 뒤따라 도착되는 8시 38분 열차를 타고 오는 시골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늦은 시간까

지 시장이 형성된다.

안강, 사방, 부조 등지에서 머리에 이고 들고 오는 물건들은 모두가 싱싱하고 푸짐하다.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상인과 소비자를 보면 삶이란 이렇듯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리며 치열하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실감한다.

한바탕 새벽시장을 보고 나면 시장 골목을 다니며 파는 커피 맛도 일품이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커피 맛은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삶의 단면이다. **【특집부 진용숙】**



두터운 점퍼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얼굴만 간신히 내놓은 그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삶의 열정을 과시한다.

### 인터뷰

#### ▲ 나체 마라톤

한 여자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애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뜨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황급한 목소리로 애인에게 말했다.

“서둘러요! 남편이 오고 있어요. 빨리 창밖으로 나가세요!”

“뭐? 밖에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나가?”

“남편이 우릴 보면 둘다 죽일 거예요!”

애인은 어쩔 수 없이 옷가지들을 주워들고 창밖으로 뛰어 내렸다. 마침 밖에서는 시인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엄겨울에 남자는 그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서 뛰고 있던 노인이 남자에게 말했다.

“젊은이는 항상 그렇게 다 벗고 뛰오?”

“예- 벗고 뛰는게 편해서요.”

“그 옷가지들도 들고?”

“예, 그래야 다 뛰고 난 다음에 옷을 입죠.”

“그럼 그 콘도도 항상 끼고 뛰오?”

그러자 남자가 씨익 웃으며 말하길,

“아하! 이거요? 이컨 비 올 때만..”

### 역사향기 은은한 민속용품 가득

####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강촌 민속당

경주를 보고 난 후 신라의 역사와 향기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오래 찾게 되는 곳, 강촌.

지금은 추워져야 할 완충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아졌다.

경주에서 추워져야 할 완충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아졌다.

경주에서 추워져야 할 완충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아졌다.

하여 되살려 놓은 조상의 숨결. 그 숨결에서 묻어나는 온기가 많은 김손들을 불러들이는 이곳은 온통 민속품으로 가득하다.

실내 인테리어와 폭포시공, 거실 미니폭포, 미니정원, 배란다정원 등 실내 장식은 전문으로 하는 이곳은 조상의 숨결을 내공간에 불러들이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안목을 지닌 권오태씨가 운영한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세월을 고스란히 안은 장롱과 뒤주, 일반 여염집에서는 보기 힘들

있던 문자와 평상, 여인네들이 우아하게 차를 끓여 마셨을 다구, 안방에서 쓰던 다양한 소품, 그리고 각종 절구, 문양이 특이한 장독 외에도 우리 선조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했던 용품은 다 볼 수 있다.

주 고객층은 일반 가정에서 보고 즐기려는 주부와 소장품들이며 민속 차집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인기가 높다. 가격은 저렴한 편, 산을 바라보는 눈 맛이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듯 민속품도 보는 안목에 따라 달라진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며 주인공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련한 향수 이상으로 느끼는 와 닿는 강촌 민속당 옛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소품하나 만지는 것도 진정한 우리의 맛이 아닐까 싶다.

문의 (0561) 743-0449. **【특집부 진용숙】**

### 아시아무역

☎. 016-537-7002

자동차 사진 가격으로 되파십시오.

☎. 016-521-9412

### 21세기 벤처축산

# 타 조

분양, 사육상담, 농가견학 환영

농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791

**포항타조영농조합법인**

☎. (0562)284-9762, 011-548-9762

### 카D카오디오 A/S전문점

카오디오 중고 교환 보상판매(전품목 가능)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카오디오 수리 차량용 6장 CD, 파이오니아, 쉐보트 알파인, 소니, 파라소닉, 카D A/S대리점

전문장학 및 수리전문점

**베타통신 카오디오**

☎ 274-7822

### 냉동기 재생 공장

냉동 냉장 창고류

냉장기: 트러니코, 팬터, 가스냉, 온풍기

냉각기: 활어, 조개

에어컨: 향문형, 분리형, 슬림형, 50이상

삽니다

태산냉동 T.275-7412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난방은?

화성에너지, 231-1860

# 방수!

Q마크획득 신개발품 칠만표 방수제 누구나 못 하나로 100% 완전방수

제품의 특징: 젖은면에서도 강한 침투성/접착성/투과성/내구성/고탄성

사용방법 (소포장 판매합니다.): 방수할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두께가 2회 이상 붓이나 로라로 칠만하면 젖은 면에서도 강한 침투성과 접착력이 있어서 100% 완전방수를 보장합니다.

사용장소: 목장, 지하실, 물탱크, 외벽, 어항, 욕탕, 양어장, 수영장, 스트리트, 옥재, 플라스틱, PVC 등 방수를 요하는 곳

대리점: 남구(0562)282-9400(송도부산건재) 강구역(0564)733-4400(강구 터미널) 울진(0565)783-5014(미래건재) 영천(0563)337-2334

# 확 깎는다

아무리 무리해도 끄떡없습니다

숙취해소용 천연차 - 여명808

무리한 날엔 여명808을 꼭 챙겨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자신도 놀라만큼 맑아지게 깨어납니다.

오리나무와 다양한 한방재료를 추출물로 만들어진 숙취해소용 천연차 - 여명808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과학기술연구소의 산학 협력 아래 태어나 더욱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음주 전후에는 언제나 - 여명808 이제 더 이상 숙취는 없습니다.

**(주)그래미** ☎. 274-7808, 080-3450-808

# 미국에서 먼저 성공한 PANAC737-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발명품 - 파나CA737 21세기를 열어갈 획기적인 신음료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선택한 천연차- 파나CA737 그 힘을 느껴 보십시오.

총계가 두렵지 않은 음료 Revolutionary Invention Anywhere

Great Grand-Prix Best Invention of the Far East

Magician of the Healths PANAC737 (주)그래미의 여명808, 파나CA737은 대한민국의 대표 천연차입니다.

99 미국 발명품 대상을 수상한 세계 발명품 대상을 수상한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발명품이 제안하는 세상을 바꿀 인류 최대 발명품- 파나CA737

총계가 두렵지 않은 천연차!

**PANAC737**

총계가 두렵지 않다. 비오는 날도 두렵지 않다. 격렬한 운동도 두렵지 않다.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주)그래미**

문의전화: 284-1808

담배처럼 피우면서 담배값은 '심심초'

향수관 박사가 원하는 니코틴 없는 **금연담배 심심초**

향수관 계가 확실한 '금연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의 물질인 동시에 습관성이 강하여 금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심심초는 금연 담배 심심초로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금연하면 신비함 날라갑니다**

금연심심초는 피우면서 담배를 끊는 금연 보조제

심심초 인체에 무해한 천연초를 만든 담배의 양을 조절해 흡연량 조절이 가능하며 흡연 습관을 완전히 없애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연후기가 궁금하다면 담배를 피우면서 3일에서 3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담배가 싫어지므로 일시적인 금연이 아닌 영구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권장소비가 199,000원

특별 할인 판매 **99,000원**

기술향개발 대한금연협회 (0562)282-7090